

21세기 의 天安 은 忠 南 北 部 圈 4 千 萬 이 가 보 고



이 종 수
(李鍾洙)
충청남도의회 의장

올해는 충청남도가 開道 100周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예로부터 충남은 「忠節의 고장, 精神文化 中心地」로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인접한 국토의 중심지로 찬란했던 백제문화 유적을 비롯하여 계룡산, 금강, 서해안, 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에는 道民들의 開發意志와 열의가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民選自治時代의 새로운 개막과 더불어, 200만 도민 모두가 지역발전에 대한 개발의지로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 가시화되면서, 우리道議會에서는 「國策事業推進特別委員會」를 구성하

여 다각적인 유치노력과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충남도에서는 200년대 도민의 삶의 모습과 지역발전상을 한 눈에 담은 장기발전계획의 시안인 「4大圈 開發經營 構想」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기개발 전략은 낙후된 충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과거의 행정구역단위의 개발권역을 탈피하여 생활권 단위인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의 4대권역별로 나누어 지역기능의 특성을 살린 점은 주목되는 개발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권에 속하는 천안은 충남 제일의 도시로 삼남과 서울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 문화의 도시, 교육중심도시, 공업도시입니다. 또한, 과거 극난극복의지를 되살리는 역사의 현

장인 독립기념관을 비롯하여, 기미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 유적 등 곳곳에 성역지가 있으며, 천안삼거리 홍타령 문화행사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의 문화행사와 지방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충남의 얼을 살리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는 인구 100만명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 연장 개통 등으로 서울과는 불과 30분대 생활권에 속하는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2001년에는 전국체전 충남 개최를 주도하고 나아가 월드컵까지 개최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과 교통·숙박·경기장 시설, 관람객 유치, 시민 봄조성, 경기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손색 없는 여건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안은 온천관

광 휴양지, 골프장, 해수욕장, 백제문화 유적 등 풍부한 레저시설과 관광지를 보유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4千萬이 가보고 싶은 忠南의 北部圈」으로 21세기의 천안은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능을 분담해야 할 충남의 북부권을 신산업지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아산·석문국가공단을 비롯한 지방공단과 향만 복합개발, 천안역세권 신시가지 개발 등 공단 배후도시 건설, 기능대학 설치, 천안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은 이러한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개발 가치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주민생활중심의 도시공간 창출과 환경친화적인 개발 전략으로 환경정책에도 과감한 시설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많은 재정부담이 수

반되지만,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때는 「제3섹터」방식의 도입 등 민간의 힘을 빌려서라도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먼 후대까지 계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고 명실공히 천안을 미래의 도시로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시민 모두가 깊은 향토애와 단결된 화합을 바탕으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나갑시다.

아무쪼록 「4人圈 開發經營構想」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남 북부권 천안이 충남 제일의 도시답게 교통, 문화, 관광, 공업기반 등 우수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21세기 꿈과 미래가 있는 「4千萬이 살고싶은 忠南」으로 가꾸어 나갑시다.